

여름철 여드름 예방과 치료법

수족구병 국내 첫 사망·A형 간염 집단 발병

여름철 전염성 질병 비상

스트레스 줄이고 짙은 화장 피하라

날씨가 더워질수록 여드름환자가 늘어난다. 피지 분비가 늘어 기름기가 많아진다. 따끈따끈한 여드름도 나빠지기 때문이다.

손 대거나 타월 사용엔 2차 감염 위험 레이저시술 종류·형태 따라 선택해야

여드름의 진행=여드름은 사춘기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연령에 따라 평생 생긴다고 할 수 있다.

23, 30대 여드름은 주로 스트레스와 화장품, 호르몬에 의한 경우가 흔한데, 생리 일주 이전에 여성호르몬 때문에 생긴 여드름이나 타월로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유발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드름을 관리 및 치료=여드름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름철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한다. 항상 청결하게 피지 제거용 세안제를 하루 2~3회 정도 씻고, 너무 자주 씻거나 타월로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유발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드름을 관리 및 치료=여드름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름철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한다. 항상 청결하게 피지 제거용 세안제를 하루 2~3회 정도 씻고, 너무 자주 씻거나 타월로 문지르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유발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여드름은 자기관리가 중요하며, 심할 경우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심삼식 맑은피부과 원장이 레이저로 여성 환자의 여드름 균을 파괴하고 있다.

1~2주 간격으로 3~5회 시술하면 심한 염증성 여드름도 효과적으로 치료된다.

'블루 RF 레이저'의 경우 블루라이트와 고주파치료를 겸해 심하지 않은 여드름을 치료하면서 얼굴 탄력에 도움을 준다.

최근 광역동적치료법(PDT)이 소개됐다. 이는 여드름부위에 빛에 반응하는 광감작물질을 도포해 피지선에 흡수시킨후 특정한 파장의 레이저를 쬐어준다.

'아이슬레즈 레이저'는 공기흡입을 통해 깊은 부위까지 레이저를 조사시켜 여드름 치료효과를 높였다.

여름철을 앞두고 각종 전염성 질병이 잇따라 발병하고 있어 각별한 개인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신종 플루'가 가라앉기도 전에 수족구병, A형 간염, 식중독 등의 감염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광주시 간호사회, 서서평 선교사 기념 세미나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독일 출신 서서평 선교사를 기념하는 세미나가 광주시에서 열렸다. 광주시 간호사회와 광주여성회포럼 보건의료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1912년부터 22년 동안 광주에서 사회계몽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를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은병원(원장 은대숙·사진) 내시경팀은 오는 21일~23일 호주 브리즈번 국제내시경학회는 21~23일 호주 브리즈번 국제내시경학회는 은병원 내시경팀, 논문 4편 발표

법원 부동산 경매정보 (주)국민법률경제대 * 사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